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과정과 사회분화

-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

송증열

(호남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전북 서부지역 토광묘 분석 |
| II. 전북 서부지역의 고대경관과 점토대토기문화 유적 분포 | IV. 원천권 대규모 군집묘의 이해 |
| | V. 맺음말 |

I. 머리말

지금까지 점토대토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한 유적에서 소수의 유구만 확인되는 자료의 한계에 부딪혀,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물질적 패턴에만 주목한 채 편년과 전개과정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로인해 한반도 내 유입에 의해서 발생된(박순발, 1993; 李建茂, 1994) 점토대토기문화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 전북 서부지역에는 완주, 전주, 익산, 김제 등에서 점토대토기문화 토광묘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완주지역에 대한 대규모 발굴이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10여기가 군집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당시 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燕의 동진과 위만조선의 성립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한 혼란을 피해 낮은 한반도로 이주해온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은 짧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정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 서부지역에 토광묘 군집이 나타나게 되었다. 토광묘 군집양상은 1개소의 유적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릉을 달리하며 몇 개소의 유적이 군집하는 양상도 보인다. 또한 1개소의 유적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거나, 일정한 권역 내에 구릉을 달리하여 상위 유력자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 서부지역에서 보이는 토광묘 군집간의 위계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별로 거점 권역을 나누고 각 거점권역 별로 토광묘의 입지와 축조시기, 각 권역별 상위 유력층 분묘의 인지와 권역 간 위계화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전북서부지역 내의 거점권역별 정착과정을 알아 보고, 마지막으로 토광묘의 대규모 군집이 나타나는 신흥유적을 중심으로 한 권역에서 토광묘 군집들 간에 입지와 계층의 차이 등을 추정해 봄으로서 당시의 사회분화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II. 전북 서부지역의 고대경관과 점토대토기문화 유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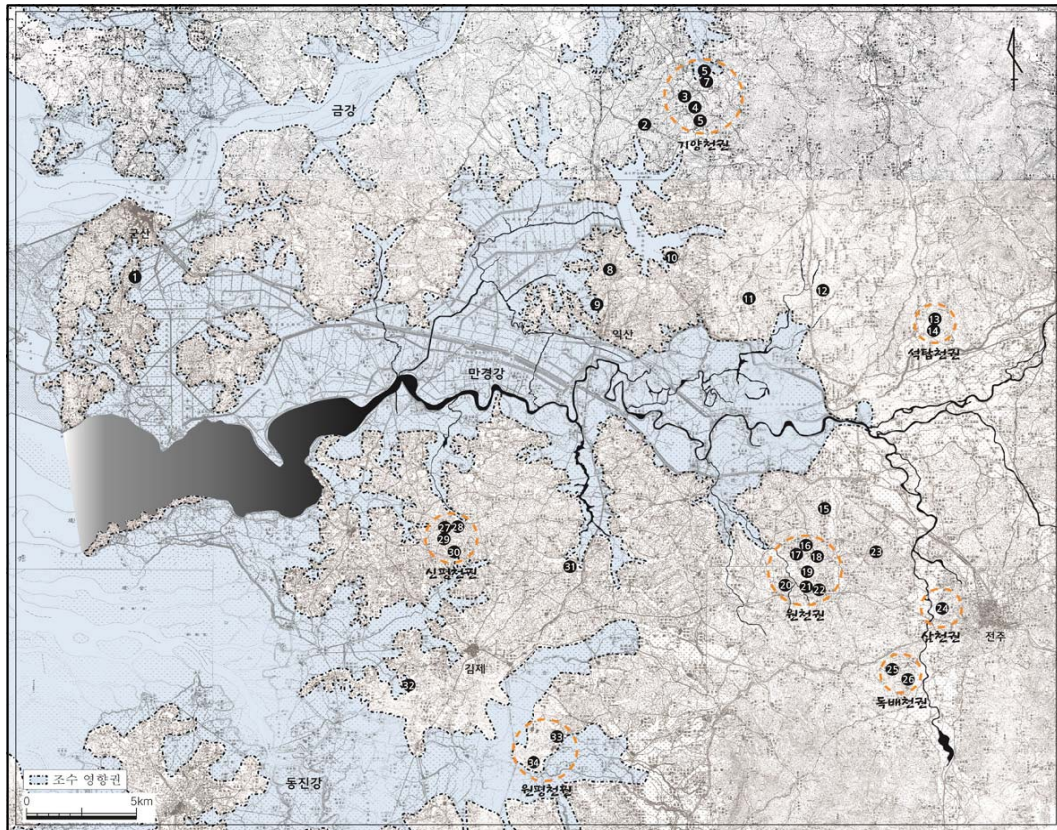
1. 전북 서부지역의 고대경관

전북 서부지역은 동부와 남부는 호남정맥의 산록, 북부는 금강, 서부는 서해와 면하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호남평야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은 서해로 흘러들고, 평야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해발 3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넓게 산재하고 있다.

점토대토기문화는 이 전북 서부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점토대토기문화가 정착하던 당시의 전북 서부지역의 환경은 현재와는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호남평야와 같은 비옥한 농토가 만들어진 시기는 1910년대 이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대규모 간척과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기 때문이다. 즉,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 만경강유역과 동진강유역은 해발 7m 이하 지역은 조수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해발 10m 내외인 지역은 조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하천수위와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침수가 빈번하였던 곳이다¹⁾. 이러한 주기적인 조수의 유입은 流水量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수로교통에는 최적의 환경을, 찌물의 유입과 침수로 인해 水稻作과 같은 농사에는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만경강 및 동진강유역 조수의 직·간접적 영향 범위는 도면 1과 같다.

1) 송종열(2015)의 만경강유역 고대경관을 참고하였으며, 동진강유역 또한 만경강과 같은 感潮河川으로 조수의 영향을 받는 조건은 같았을 것이다.



도면 1. 전북 서부지역 조수의 영향범위와 점토대토기문화 유적 분포(유적번호는 <표 1>의 번호)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은 만경강·동진강유역을 중심으로 조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경계로 분포하며 특히 가항수로의 종점, 즉 수로교통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양상을 보인다(도면 1).

2. 점토대토기문화 유적분포 및 거점권역

전북 서부지역에서 분묘유적은 34개소에서 확인된다(표 1, 도면 1). 분묘유적에서는 순수토광묘와 토광목관묘,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그 중 토광(목관)묘가 군집형태로 확인된 유적은 모두 23개 유적으로, 최소 10기에서 최대 110여기의 토광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완주 신평·갈동·덕동·원장동유적 등을 중심으로 가장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토광묘 군집양상은 1개소의 유적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릉을 달리하며 몇 개소의 유적이 군집하는 양상도 보인다. 여기서는 군집양상을 보이는 전북 서부지역의 유적을 7개의 거점권역²⁾으로 나누었다. 거점권역은 모두 만경강과 동진강의 지류에 인접해 위치하므로

2) 문화적 차이가 아닌 전북 서부지역 내에서 토광묘 군집 규모로서의 단위이며, 군집 토광묘 주변으로 비슷한 시기의

지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점권역을 명명하였다.

지역별 분포 및 군집현상을 살펴보면 동진강유역보다는 만경강유역에서 토광묘의 군집양상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중심지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분포현황

번호	유 적 명	거점권역	유 구	주요출토유물	비 고
1	군산 둔율		토광묘1	흑도장경호	
2	익산 서두리1		토광묘1	동사(銅鈎)	
3	익산 오룡리5	기양천권	토광묘2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조문경, 석촉	
4	익산 오룡리4		토광묘1	장경호	
5	익산 오룡리3		토광묘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석촉	
6	익산 구평리II		토광묘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7	익산 구평리IV		옹관묘1	호	
8	익산 계문동		토광묘1	검파두식	
9	익산 송학리		토광묘1	석촉	
10	익산 어양동		옹관묘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11	익산 신동리		토광묘3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검파두식, 철부, 철사	
12	익산 평장리		토광묘?	동검2, 동모, 동과, 전한경	
13	완주 둔산리 서당	석탑천권	토광묘17	소호, 장경호, 흑도장경호, 동검, 동사, 석촉	
14	완주 수계리		토광묘5	장경호, 방추차, 동검	
15	전주 장동		토광묘	점토대토기	
16	완주 갈동	원천권	토광묘1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홍도, 거꾸집, 정문경, 동검, 청동촉, 동모, 동부, 철부, 철검, 철사, 환형유리, 유리옥	
17	완주 갈산리		옹관묘2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	
18	완주 원장동		토광묘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정문경, 동검, 동과, 동사, 동부, 관옥, 석촉	
19	완주 덕동		토광묘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대부호, 동검, 조문경, 동사, 동부, 동착, 석촉	
20	완주 신흥 가		토광묘5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대부호, 무문토기, 간두령, 동경, 동검, 동과, 동사, 동착, 철도자, 철부, 철착, 유리옥세트, 석촉 등	
21	완주 신흥 나		토광묘2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경, 동검, 동부, 동과 등	
22	완주 중동C		옹관묘1		
23	전주 만성동		토광묘1	흑도장경호, 동경, 동검, 동사, 동과, 유리관옥	
24	전주 중화산동	삼천권	토광묘15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동검편	
25	전주 중인동 하봉	독배천권	토광묘1	동부	
26	전주 중인동		토광묘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27	김제 수록리A	신평천권	토광묘7	소호, 동부	
28	김제 산치리		토광묘1	발	
29	김제 부거리XIII		토광묘1	점토대토기	
30	김제 부거리 다지구		토광묘1	토기편	
31	김제 상동동 I		토광묘1	점토대토기	
32	김제 장화동		토광묘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33	김제 서정동	원평천권	토광묘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정문경, 동부, 동착, 동사	
34	김제 서정동II		토광묘6, 옹관묘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대부호, 동검, 검파두식, 철부, 철검, 철모, 석촉, 관옥	

1~3기의 토광묘가 확인되는 유적이 분포하므로 거점권역의 성격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1) 거점권역의 유적분포와 입지

(1) 원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여러 거점권역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다른 거점권역들이 넓게 분포한다. 만경강 본류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6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쪽에는 원천이 동쪽에는 조촌천이 북류하여 만경강과 합류한다. 해발 35m 내외의 구릉에 7개소의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은 원천을 중심으로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나뉘진다. 북쪽의 구릉은 갈동유적, 원장동유적, 덕동유적, 갈산리유적 등 4개의 유적이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위치한다. 남서쪽 구릉에 위치한 신흥유적 가지구는 원천으로 인해 북서쪽 구릉의 토광묘들과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7개소의 유적에서 토광묘 110기, 옹관묘 3기가 확인되었고, 가장 큰 규모의 군집을 보이고 있다. 토광묘의 매장시설은 대부분 목관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갈동유적 1호 토광묘의 매장시설이 목곽묘로 보고되어 주목된다. 옹관묘는 갈산리유적에서 2기, 중동C유적에서 1기 등 3기가 확인되었는데, 토광묘와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단독으로 입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면 2. 원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2) 독배천권

전북 서부지역 남동쪽의 가장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남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만경강의 지류인 삼천이 북류하는데, 삼천은 만경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을 이어주는 교통로와 연결된다. 삼천의 지류인 독배천을 사이에 두고 중인동유적과 중인동 하봉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2개소의 유적에서 총 10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도면 3. 독배천 유적분포와 입지

(3) 삼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만경강 본류에서 남으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 삼천, 동쪽으로 전주천이 복류하여 만경강과 합류한다. 단일유적으로 10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도면 4. 삼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4) 석탑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북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류쪽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만경강의 지류인 석탑천이 남류하여 만경강과 합류한다. 곡간지들 사이에 두고 둔산리 서당유적과 수계리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2개소의 유적에서 총 22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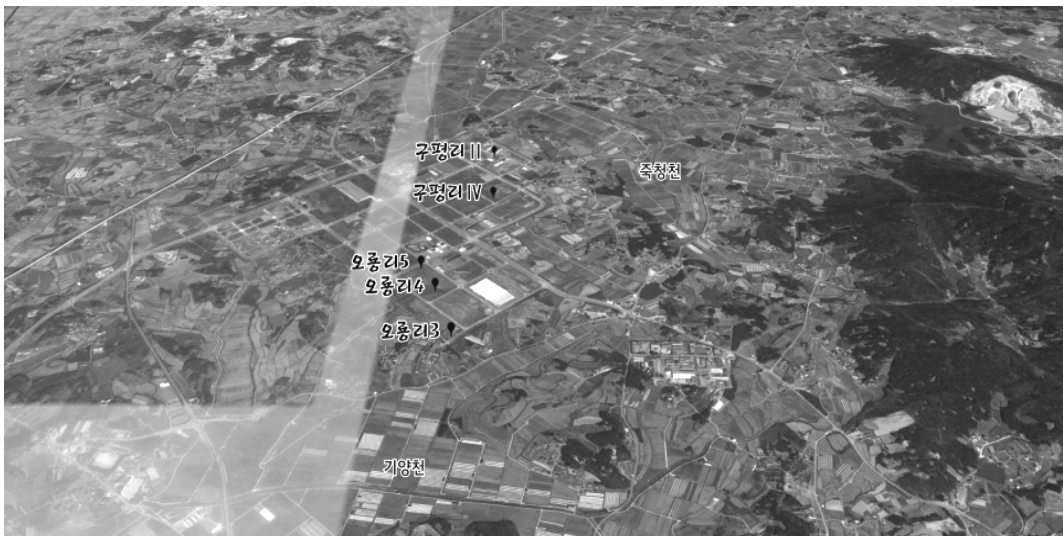


도면 5. 석탑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5) 기양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북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금강 본류에서는 남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만경강의 지류인 기양천이 남류하여 만경강과 합류하고, 북쪽으로 금강의 지류인 죽청천이 북류하여 금강과 합류한다. 유적은 2개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 구릉의 오룡리3·4·5 유적과 북서쪽 구릉의 구평리2·4 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5개소의 유적에서 토광묘 8기와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도면 6. 기양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6) 신평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북으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다. 북쪽의 소하천이 북류하여 만경강과 합류하고, 남쪽의 신평천이 서류하여 동진강과 합류한다. 유적은 2개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4개소의 유적에서 총 10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도면 7. 신평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7) 원평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진강유역에 속한다. 동진강의 지류인 원평천이 남쪽에 위치하는데 유적의 서쪽에서 두월천과 합류한 후 서류하여 동진강과 합류한다. 유적은 정상부와 사면부에 위치한다.

2개소의 유적에서 토광묘 11기와 옹관묘 4기가 조사되었다.



도면 8. 원평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III. 전북 서부지역 토광묘 분석

1. 입지와 교통

유적에 경관에 있어 입지는 과거 경관의 원형과 그 경관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의 중요한 기본 틀이다. 따라서 입지를 살펴볼 때에는 현재의 시점이 아닌 과거의 시선으로 경관을 추정·복원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각 유적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점토대토기문화가 한반도에 출현·유입된 요인을 추정·설명할 수 있다. 즉 점토대토기문화는 燕의 동진과 위만조선의 성립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한 혼란을 피해 이주하면서 그 대부분(혹은 일부)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 서해 해로를 통해 남한지역에 유입(朴淳發, 2004)된 점토대토기문화는 교통의 이점이 있는 강이나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에 정착하여 그들의 물질문화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점토대토기문화는 짧은 시기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집단이동에 있어 육로에 비해 신속, 안전, 편리함을 가진 해로와 수로를 점토대토기집단이 적극 활용하여 이동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7개의 거점권역 외에도 전북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만경강과 동진강 혹은 금강으로 연결되는 지류에 인접해 있는데, 이는 조수의 유입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생계경제와 관련된 농업이나 어업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수로교통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입지선정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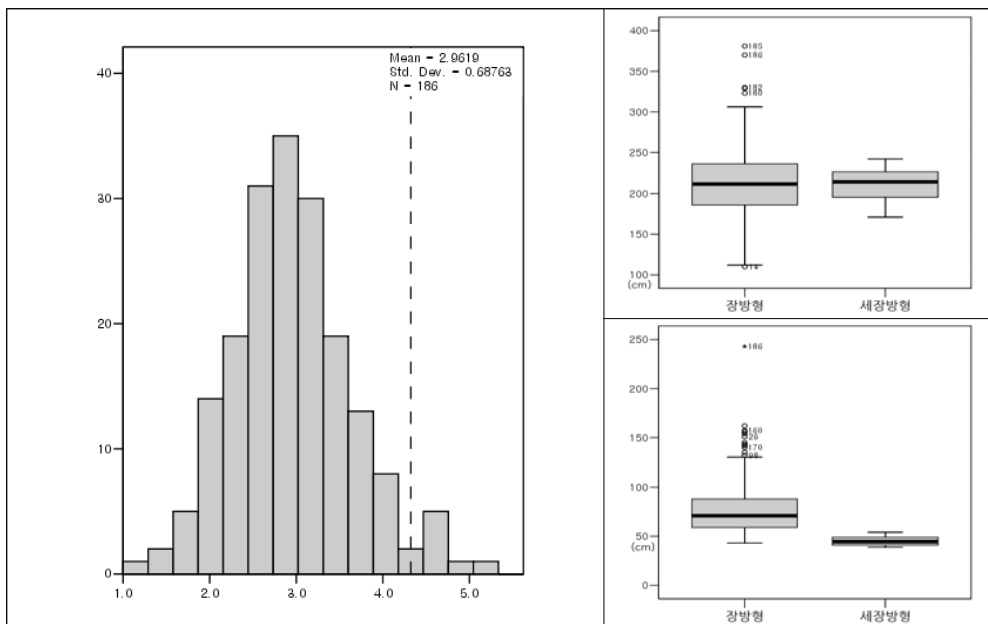
전북 서부지역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동진강이 감싸고 있으며, 중앙에는 만경강이 동에서 서로 관통하고 있다. 또한 이 3개강의 수많은 지류는 전북 서부지역의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국도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전북 서부지역의 거미줄 같은 수로교통로는 거점권역간, 혹은 거점권역 외의 점토대토기집단들 사이에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高地의 제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宋滿榮 2011:47)과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서부지역 점토대토기집단들의 교역 망을 통한 생계방식(高은별 2012)은 이 시기 집단 간 교역과 연결망의 형성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수로교통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정착지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착 이후에도 기원지와 지속적인 교역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전북 해안지역은 항로상의 중개지 역할뿐 아니라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 내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전북 서부지역은 수로를 통한 해안지방과의 연결이 원활한 곳으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물품들은 이 수로를 통해 내륙에 효과적으로 공급 할 수 있었고, 반대로 내륙에서 생산한 물품을 손쉽게 운반한 후 해로를 이용한 해상교역을 실시할 수 있었다. 즉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운을 통한 교통의 이점은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기원지와의 교역을 원활하게 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전북 서부지역에 다량의 청동기와 철기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동반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국제교역망이 거점 단위로 운영(정인성 2010: 29)된 것과 같이, 전북 서부지역의 소권역들 또한 이러한 국제교역망의 거점 단위 중 하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가항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거점을 취하는 이러한 선택의 경향은 한반도 내 성공적인 정착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송종열 2015).

2. 토광묘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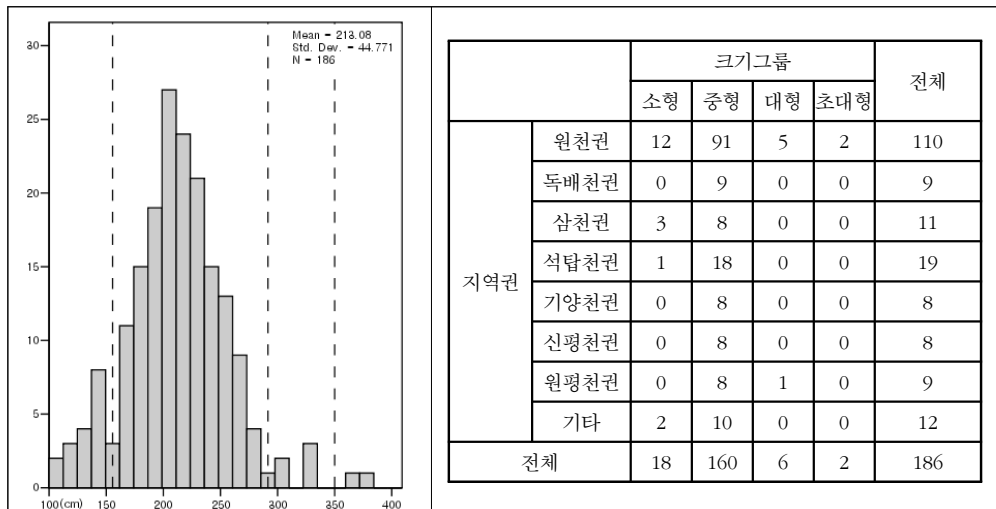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상지역 내에서 확인된 토광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우선 크기와 너비를 알 수 있는 186개의 토광묘를 대상으로 세장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도면 9>와 같이 크게 2개 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세장도 4.3:1을 기준으로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장방형의 토광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장도별 토광묘 크기와 너비를 비교하면 <도면 9>의 상자도표와 같은데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너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세장도별 크기와 너비 비교를 통해 토광묘의 세장도를 결정하는 것은 크기 보다는 너비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토광묘의 너비는 목관의 유무와 관련이 깊은 속성으로, 목관을 사용하면서 넓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완주 신흥유적이나 익산 구평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세장방형의 토광묘에서는 목관과 관련된 토층이나 목질흔 등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장방형의 토광묘는 목관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9. 토광묘 세장도 분류 및 세장도별 크기(上)와 너비(下) 비교 상자도표

크기를 알 수 있는 186개의 토광묘를 대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표 2>와 같이 크게 4개 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크기에 따라 각각 소형(100~155.6cm), 중형(155.7~291.6cm), 대형(291.7~350cm), 초대형(351cm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중 중형의 토광묘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 즉 중형은 초기철기 문화집단 토광묘의 일반형이라고도 표현 할 수 있다.

표 2. 토광묘 크기 분류 및 지역권별 빈도



거점권별 토광묘 크기의 빈도를 살펴보면 모든 거점권에서 중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원천권에서는 모든 크기의 토광묘가 확인된다. 특히 대형과 초대형의 토광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과 초대형의 토광묘는 갈동과 신평유적에서 나타나는데 철기와 토기가 다량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간두령을 비롯한 청동기류의 부장을 통해볼 때 위계상 상위 혹은 최상위의 것으로 보이는 토광묘가 확인된다.

토광묘 크기별 철기와 청동기 출토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철기와 청동기의 출토 점수는 배제한 채 출토 유무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토광묘의 크기가 클수록 철기가 부장되는 양상($\alpha=0.00$ 에서 유의)이 확실히 보이는 반면 청동기와 토광묘의 크기에는 관련성($\alpha=0.09$ 에서 유의)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천권, 기양천권, 석탑천권, 독배천권, 신평천권 등 소권역내 토광묘 분포에서 비교적 위계가 높은 토광묘는 묘역(구릉)을 달리하며 위치하거나, 한 묘역 내에서도 군집하는 토광묘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차별성을 보인다. 예컨대 기양천권은 곡간지를 중심으로 오룡동유적과 구평리유적으로 나뉜다. 오룡동유적에서는 4기의 토광묘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열상배치 되어있는 반면 구평리유적은 오룡동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4기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오룡동 유적에서는 토기류와 함께 동검, 동경, 석촉 등 부장유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반면, 구평리유적은 동검이 부장되었지만 종류와 양에서 빈약함이 보인다. 또한 원평천권의 서정동II유

적은 토광묘 6기와 옹관묘 4기가 군집하고 있는데, 서쪽하단부의 토광묘와 옹관묘는 이격 거리가 짧은 반면, 1호 토광묘는 구릉 정상부에 떨어져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부장유물 또한 1호 토광묘에서 동검, 철검, 철모, 검파두식 등이 출토되어 다른 토광묘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동일구릉 혹은 동일 집단 내 위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듯 거점권역과 군집묘 내에서 묘역 혹은 위치를 달리하며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토광묘를 조성하는 행위는 토광묘를 조성하고 묘역을 구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장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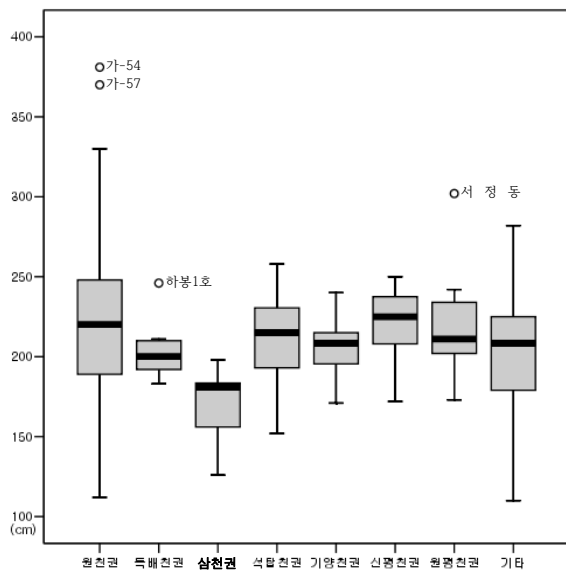
출신과 권위 또는 계층 등을 반영한 묘역의 설정은 거점권역별 상위 유력층 분묘가 존재했음과 함께 초기철기문화집단의 사회분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위 유력층 분묘를 인자분리시킨 후 상호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면, 거점권역 간 위계화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점권역별 위계화 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부장된 유물 중 포함되어 있는 위신재의 비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대에 따른 사회정세 변화도 주목해야 하지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지석묘와 거석기념물 같이 많은 양의 노동력을 통해 위계화를 표현하기 보다는 청동기와 철기 등의 위신재를 피장자와 함께 부장함으로써 그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거점권역별 토광묘 크기를 비교해보면(도면 10) 원천권과 신평천권의 토광묘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삼천권의 토광묘 크기가 가장 작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거점권역의 토광묘 크기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도면 10). 거점권역별 토광묘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는 각 거점권역 내 상위 유력층을 완벽히 분리시켜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토광묘 크기와 철기는 서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청동기와는 관련을 보이지 않는 분석과도 상통한다. 즉 철기의 부장이 권위를 상징(한수영 2011:11)하긴 하지만 청동기 중심의 위신재에 일부가 추가되는 양상을 띠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거점권역별 위계화 즉 상위 유력층의 분묘를 분류하기 위해 각각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각 거점권역별로 청동기류는 동경, 동검, 동부, 동작, 동과, 동사 등이 고루 확인된다. 대신 동검편이나 동부편 등의 질과 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문경과 정문경 등 동경은 원천권, 기양천권, 신평천권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의기류와 동령류는 희소성이 강한 청동기류로서 당시 집단 내 최상위 계층이 소유했던 위신재



도면 10. 거점권역별 토광묘 크기 상자도표

이며(李賢惠 2003;李健茂 2004), 동경은 지배자의 소지품으로서 최고 등급의 청동기류로 여겨지고 있다(李清圭 1999:2). 이러한 관점에서 동경이 나타나는 원천권과 기양천권, 원평천권이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원평천에서는 조문경이 확인되는 두 지역과 달리 철기가 확인되고 있어 시기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거점권역 변천과정

전북 서부지역의 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흑도장경호·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대부호·소호·원통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간두령·조문경·정문경·동검·동과·동모·동착·동부·동사 등의 청동기류, 환두도·자철부·철사·철검·철촉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시간성을 파악해보면 크게 점토대토기는 점토띠의 형태(원형→삼각형), 동체부의 장동화, 동최대경의 위치에 따른 시간성을 보인다. 흑도장경호도 동체 형태가 편구형에서 구형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주로 부장되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호, 원통형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등 기종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청동기류 중 동경은 조문경에서 정문경으로의 변화하며, 동부는 선형→장방형·주머니형→유견동부의 형식으로 변화한다. 또한 이형동기의 등장 이후 동령류의 등장, 동경과 동검 일색의 부장, 철기의 등장 등 시간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철기의 등장은 위만조선의 성립과 함께하며 BC 2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시간적인 속성의 변화를 토대로 전북 서부지역 토광묘의 연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전북 서부지역 권역별 연대와 유물부장양상

연대	소권역권	유물부장양상			
		토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기타
BC 4C	원천권, 독배천권, 삼천권, 기양천권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조문경, 동검		석촉
BC 3C	원천권, 삼천권, 석탑천권, 기양천권, 신평천권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정문경, 동검, 동부, 동모, 동과, 동사, 검과두식		관옥, 석촉
BC 2C					
BC 1C	원천권, 원평천권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대부호, 원통형토기	정문경, 동검, 동부, 동모, 동과, 검과두식	철도자, 철부, 철사, 철검, 철촉	유리옥, 거푸집

전북 서부지역 권역별 연대를 살펴보면 먼저 원천권만 유일하게 처음 토광묘가 나타나는 BC

4세기경부터 철기가 등장하는 BC 2세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토광묘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쪽의 만경강과 금강의 수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양천에서 내륙 깊숙한 독배천권과 삼천권까지 넓은 범위에서 초기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토대토기문화의 비정상적인 한반도 내 확산 속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C3 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석탑천권, 신평천권과 그 밖의 군집을 이루지 못한 소수의 토광묘 유적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 BC 2세기 대에는 원천권을 중심으로 반경 13km 내외의 일정한 거리 안에 북쪽으로는 만경강유역의 신동리 유적이, 남서쪽으로는 동진강유역의 원평천권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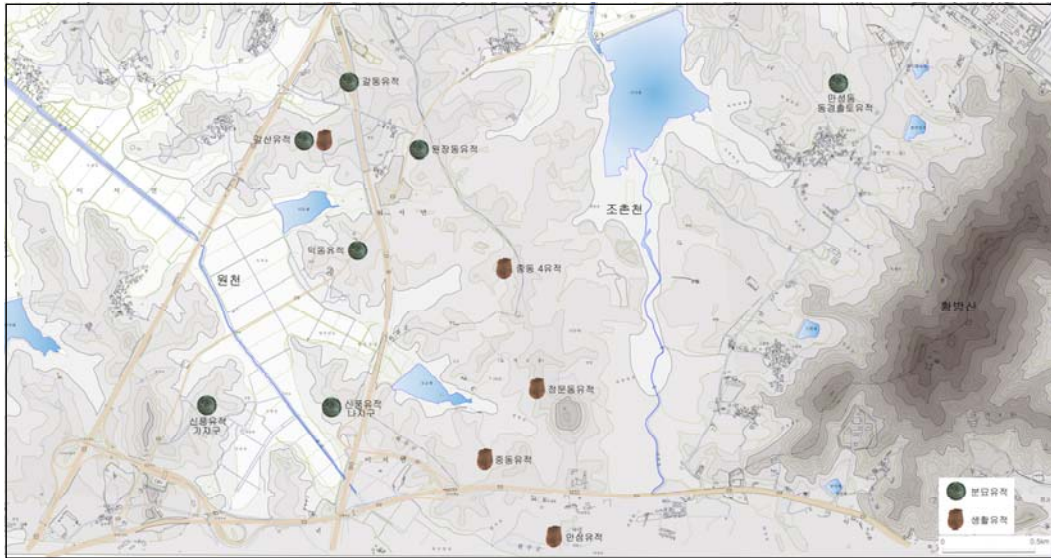
정리하면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유적은 초기에 북쪽의 기양천권에서 남쪽의 독배천권까지 산발적으로 퍼져 정착하고 수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천권과 기양천권에서 최고 유력자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어 초기에는 이 두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하지만 기양천권에서는 철기를 수용하지 못한 채 그 세력이 다한 반면, 철기의 등장·수용과 함께 대규모 토광묘군집을 보이는 원천권을 중심으로 전북 서부지역의 거점권역이 재편되는 양상이 보인다. 원천권을 중심으로 한 거점권역의 재편은 재지세력과의 관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착을 이룬 결과(송종열 2015)로 보이며, 권력의 집중화에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원천권 권력의 집중화는 대규모 군집묘로 대변되며 이는 수장을 중심으로 한 同族지배집단이 형성된 것(李熙濤 2011:71)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IV. 원천권 대규모 군집묘의 이해

원천권에서는 다른 권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토광묘 110기와 옹관묘 3기가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천권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군집묘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전북지역 내 점토대토기문화에서 원천권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6개소의 유적은 남-북으로 뻗은 구릉의 가지능선에 위치하는데, 신평유적 가지구는 원천으로 인해 다른 유적과 분리된 양상이다. 각 유적간 거리는 300m 내외로 서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다. 대규모의 토광묘가 확인된 것에 비해 생활유구는 갈산유적, 중동4유적, 정문동유적, 중동유적, 안심유적 등 5개소의 유적에서 주거지 10기, 수혈 31, 구 28기 등이 확인되었을 뿐으로 빈약한 편이다. 분묘 유적은 서쪽의 사면부에 분포하고 생활유적은 분묘유적의 동쪽 구릉의 정상부에 열상으로 위치하고 매장영역과 생활영역이 분리된 양상이다(도면 11). 이러한 영역의 분리양상은 이 시기 최대 생활유적인 안성 반제리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천권 생활유적의 위치는 황방산 동쪽 삼천유역으로 넘어가는 동-서교통로와 원천과 조촌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로

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생활유적의 동쪽에 위치한 황방산은 전주의 서쪽경계로 서해안에서 육로를 통해 삼천유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에 해당한다. 또한 황방산 동쪽의 삼천유역은 비교적 큰 규모의 송국리문화 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유적과 맞닿아 있는 동-서 교통로는 원천권 점토대토기문화집단과 재지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도면 11〉 원천권 점토대토기문화유적 분포도

원천권은 전북 서부지역에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부터 철기의 등장 이후 각 거점집단들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토광묘가 조성된다. 토광묘의 조성은 계획적인 구획하에 생활영역과 매장영역을 분리하고, 분리된 매장영역 내에서도 혈계와 사회 계층에 따라 세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천권의 구획된 토광묘는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정치, 종교,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상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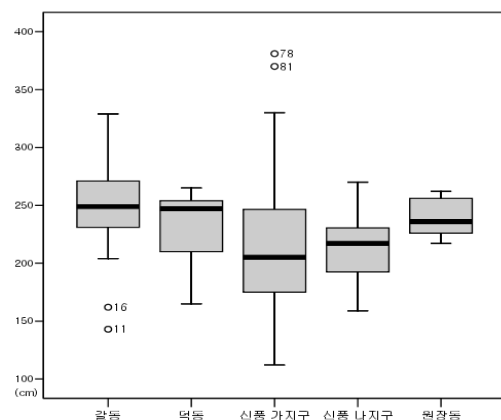
군집묘 유적의 형성과정은 동일한 집단이 累代에 걸쳐 특정 공간에 분묘를 축조하였을 경우와 여러 집단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별도로 설정된 분묘 축조공간을 공유하였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최우림 2014:54). 원천권을 제외한 전북 서부지역의 군집묘는 대부분 소규모이며 동일 집단의 군집묘로 볼 수 있다. 반면 원천권의 대규모 군집묘는 여러집단의 군집묘가 모여 있는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분화의 일면도 나타나는데, 반경 1Km내외의 대규모 묘역을 조성하고 각 집단의 묘역을 다르게 구획한 것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철기의 등장과 함께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집단이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분화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점토대토기유적 중 원천권에서 확인된 유적이 유구 밀집도나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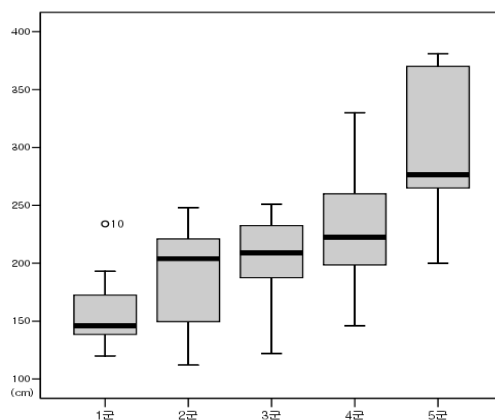
유물 등을 놓고 볼 때 집단의 크거나 위계화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발달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달된 집단이 반경 1Km의 좁은 면적 내에서 분묘와 주거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생성된 경관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경관의 인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전체의 정체성에 공동체의식을 강조하였을 것이며, 조상에 대한 혈통적 계보의 재생산과 사회 계층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고일홍 2010:20)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천권 토광묘 조성의 지속성과 묘역의 구획은 조성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토광묘 조성의 주체 즉 피장자의 계층이나 출신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집 간 피장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적별 상위유력층 분묘를 분류한 후 각 유적 간 위계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위계화가 나타나는지 이유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유적간 토광묘의 크기를 상자도표(도면 12)를 통해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갈동과 덕동유적의 토광묘가 가장 크며, 신평 가·나지구의 토광묘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이런 유적간 상대적인 토광묘의 크기는 유적에 속한 토광묘 개별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즉 신평유적 가지구는 54호와 57호가 다른 유적의 토광묘 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평유적은 유적 내에서 크게 5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장 유물을 볼 때도 군집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평유적 가지구의 군집별 토광묘의 크기를 분류하면 <도면 13>에서 보이듯 5군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았을 때 57기의 토광묘가 확인된 신평유적 가지구는 실제 토광묘의 크기와 내부시설의 차이, 부장유물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5군에서 1군으로 위계화 차이를 알 수 있다.



〈도면 12〉 유적별 토광묘 크기비교



〈도면 13〉 신평유적 가지구 군집별 토광묘 크기비교

각 유적간의 위계화 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부장유물을 통해 비교해볼 수 있다. <도면 12>에서 토광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 갈동, 덕동, 원장동 유적과 <도면 13> 신평 가지구 5군을 1차적으로 유력자의 분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유적들 간의 위계화는 부장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계화 정도는 1. 부장유물 재질의 다양성 2. 부장유물 종류의 다양성 3. 부장유물의

풍부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밖에도 다양한 유물의 재질, 수와 종류는 동일하더라도 개별 유물의 중요도가 동일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이는 변이도 설명되어야 한다(김범철 2012).

부장유물 재질과 종류의 다양성, 풍부도 등을 따져 봤을 때 덕동유적은 갈동과 원장동, 신평 가-5군과 비교했을 때 상위 유력층의 분묘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원장동 유적은 종류와 풍부도에서는 갈동과 신평 가-5군과 비슷하나 제질에서 철기와 유리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1호 토광묘에서 5점의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2점의 세문경이 확인되었지만 유물의 중요도와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갈동과 신평 가-5군 보다는 그 의미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원천권 토광묘 현황(번호는 표 1의 유적번호와 동일)

번호	유적명	호수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토기	청동기	철기	기타	
16	완주 갈동	1호	306	162	140	편			거푸집1쌍	
		2호	278	135	123	저부,파수		철검	환형유리1쌍	
		3호	258	107	10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2	동축3	철부,철검	관옥	
		4호	323	129	86	점토대토기, 파수부호,대부호		철부2		
		5호	259	82	52	장경호	정문경			
		6호	329	166	143	파수부호,편		철부2,철사		
		7호	232	75	36		정문경			
		8호	249	90	36	호,편	동모			
		9호	236	93	110		동부,동사	철부2		
		10호	210	75	67	점토대토기				
		11호	143	60	39	호			관옥2	
		12호	270	151	177		봉부편			
		13호	271	154	132	발,편				
		14호	246	108	121		동검			
		15호	204	81	31					
		16호	162	54	27					
		17호	231	88	62					
18	전주 원장동	1호	262	115	142		동검5,정문경2,동부,동과,동사		검파두식3, 옥30	
		2호	256	80	62	호	동검			
		3호	246	93	93	흑도장경호	동검,검파두식		석촉10	
		4호	217	66	63	점토대토기				
		5호	227	88	117	흑도장경호	동검,동사			
19	완주 덕동	D-1호	254	106	87	점토대토기2, 호, 편구호	동검,정문경,동사		석촉3	
		D-2호	215	68	79	대부호	동부,동착,동사		지석	
		D-3호	165	59	22	점토대토기, 파수부호				
		F-1호	205	68	27	흑도장경호				
		F-2호	265	75	42		동과,검파두식		석촉10	
		G-1호	254	79	78	흑도장경호	동검,동부			
		G-2호	247	91	43		동검,조문경			
20	완주 신평 가-5군	52호	282	143	125					
		53호	282	143	125	점토대토기2, 흑도장경호3,발, 파수부호	동검,동과,검파두식		석촉,관옥2	
		54호	381	131	31	흑도장경호4,호	간두령1쌍,동사	철부,철도자	철기흔	
		55호	254	105	9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2	정문경,동관			
		56호	271	132	161	흑도장경호, 대부발		철부,철도자		
		57호	370	243	186	흑도장경호,편		철촉3	석촉	

갈동과 신평 가-5군을 비교해보면 현재까지는 부장유물의 재질·종류·풍부도·중요도 등에서 신평 가-5군이 갈동유적 보다는 상위계층의 분묘로 보인다. 하지만 갈동유적이 아직 전면 발굴되지 않았으며(박수현 2009), 거푸집이 갖는 의미로 볼 때 신평 가-5군과 갈동유적간 위계는 부장유물만 가지고는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유적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유적의 성격 또는 사회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동기류의 특징적인 기종의 부장은 피장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유적을 대표하는 부장품인 거푸집과 간두령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간두령은 종교적 제의의 수행자 즉 제사장의 최고 위세품이며, 거푸집은 청동기의 생산을 관장 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갈동 군집묘 집단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장동 유적은 1호 토광묘에서 5점의 세형동검이 확인되었으며, 동과와 동부, 석촉 등 주로 무기류가 확인된다. 또한 5기의 토광묘 중 4기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는 높은 부장율을 보인다. 반면 신평 유적은 단일유적 내에서 최대의 동경부장이 확인되며, 세형동검이 부장되어도 마연을 안하거나 검파두식이 착장되지 않은 상태로 부장되었다. 석촉 또한 충전토에서 착장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장동 유적과 다르게 실용기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부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원장동 유적은 ‘武’의 계층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유적별 상위 유력층의 분묘와 위계화를 살펴보면 신평유적은 의례와 관련된 계층으로 보이며, 원장동유적은 武와 관련된 계층, 갈동유적이 생산과 관련된 계층의 분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군집묘 내에서 나타나는 묘역별 계층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의 고조선의 관료체제와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경 고조선에는 박사·대부, 후기에는 상·대신·장군·비왕 등 중국 관직과 명칭은 동일하나 독자적 행정조직이 보인다. 기원전 4세기 후반경 고조선에는 왕 및 박사·대부 등의 관료체제와 그에 따른 일정한 통치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인다. 고조선의 관직체제는 중국과 달리 분화가 덜 되었다. 문관직의 경우 전부 상이라 부르고 무관직은 장군이라 부르는 등 조선 독자의 관직체제를 갖추었으며, 가장 큰 특징이 재지기반을 가진 족장세력들을 중앙 관료직으로 편입하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료제도를 통해 볼 때 고조선은 일정한 정치적 기구를 갖춘 국가의 단계에 있었으나, 그 사회구조는 아직 지방의 촌락공동체에 토대를 둔 부족(種族) 또는 종족연합의 상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단계로서 관료기구 또한 강력한 고대 중앙집권 국가의 관료기구에 비한다면 초보적인 것이었다(송호정 2002).

재지기반인 족장세력을 편입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원천권 주변의 전주 여의동유적과 전주 효자4유적이 주목된다. 여의동유적의 1호 토광묘(적석석관묘)에서는 조문경 2점과 동부, 동착,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으며, 전주 효자4유적의 적석목관묘에서는 정문경과, 동검, 옥 등이 출토되었다. 효자4유적의 적석목관묘는 파괴가 심하여 불분명하지만 석관묘 계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두 유적에서 확인된 분묘는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재지계의 묘제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에서도

송국리문화 주거지와 분묘가 확인되어 가능성은 더욱 높다. 즉 두 유적의 분묘는 재지계 묘제 속에 외래계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두 유적의 피장자는 재지세력의 위력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묘의 성격은 고조선 관직체계의 핵심이 지방에 기반을 둔 족장세력을 중앙 관료 체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였던 사실 속에서 보았을 때 원천권의 점토대토기문화 체제 하에 있었던 재지계 지방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원천권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정착과정에서의 착취형태의 생계경제(송종열 2015)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북 서부지역에 이주한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초기에는 여러 거점권역에 흩어져 있었으나, 철기의 등장과 함께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원천권에는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힘이 집중되며, 원천권의 대규모 군집묘 속에 묘역을 달리한 군집묘들은 당시 사회분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이 글은 점토대토기문화가 한반도, 특히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금강과 동진강유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이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특히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집묘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군집묘가 출현·정착하는 과정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전북 서부지역의 고대경관을 복원했을 때,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을 비롯한 각 지류들은 고속도로나 국도와 같은 수로교통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된 유적은 이러한 수로교통의 이점을 가진 입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을 분류하면 총 7개의 거점권역으로 구분 가능하다. 각각의 거점권역은 1개소의 유적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거나 일정한 권역 내에 구릉을 달리하여 상위 유력자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거점권역의 위계화 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위신재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위신재 중에서도 동경의 유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경이 확인된 원천권과 기양천권, 원평천권을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은 점토대토기가 등장하는 시기에는 원천권과 기양천권을 중심으로 거점권역이 형성되어 유지되었지만, 철기가 등장하면서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보인다. 원천권에는 전북 서부지역에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하고 소멸되는 시기까지의 토광묘가 모두 확인되는데, 특히 반경 1km 내에 110여기 이상의 토광묘가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어 특징적이다. 대규모 군집은 구릉을 달리하며 조성되었고, 각각의 군집 내에서는 상위 유력층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다. 상위 유력층 분묘는 위신재를 통해 피장자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층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층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의 고조선의 관료체계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점권역 주변의 재지계 묘제속에서 외래계 유물

이 확인되는 분묘는 재지계 지방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전북 서부지역의 대규모 군집 토광묘에서 보이는 사회분화 및 계층화는 이 지역의 마한사회의 근본에 영향을 주어 지역적 특색을 가진 마한 소국들이 형성되는 기본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 사회체제의 변화와 준왕의 남천으로 인해 전북 서부지역으로 점토대토기 문화와 주민이 이어지고, 마한사회가 형성되는 기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論文】

- 高은별, 2012, 「慶南西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 生計經濟 研究」, 『한국고고학보』 82, p.44-83, 한국고고학회.
- 고일홍, 2010, 「무덤 자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현대 고고학의 최근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漢江考古』 4, pp.7-26.
- 金範哲·朴桂燬, 2012, 「湖西地域 松菊里型 墳墓의 階層化樣相 論議」, 『한국고고학보』 82, 한국고고학회, pp.4-43.
- 박수현, 2009, 「V. 考察」, 『完州葛洞遺蹟II』, p.80-117, 湖南文化財研究院.
- 朴淳發, 1993, 「漢江流域의 靑銅器·初期鐵器文化」, 『한강유역사』, p.115-224, 민음사.
- ,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錦江考古』 창간호, p.37-63, 충청문화재연구원.
- 宋滿榮, 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한국고고학보』 80, p.29-62, 한국고고학회.
-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호남고고학보』 50, pp.52-69.
- 宋鎬晨, 2002, 「衛滿朝鮮의 정치체제와 삼국 초기의 부체제」, 『國史館論叢』 98, p1~25.
- 李建茂,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 -成立背景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 p.155-182, 文化財 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李清圭, 1999, 「東北亞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pp.1-36.
- 李熙濬,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pp.35-77.
- 李賢惠, 2003, 「한국 初期鐵器時代의 政治體首長에 대한 고찰」, 『歷史學報』 第180輯, pp.1-34.
- 鄭仁盛, 2010, 「동북아시아에서 타날문 단정호의 확산」, 『중도식무문토기의 전개와 성격』 제7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요지, p.5-34, 숭실대학교.
- 崔雨林, 2014, 「墳墓를 통해 본 中西南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록표 연구」, 『호남고고학보』 39, p.5-25, 호남고고학회.

【보고서】

- 강원중·고금남·조명일, 2008, 『全州 中仁洞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강원중·김규정·조명일, 2008, 『全州 中華山洞 土壙墓』, 전북문화재연구원.
- 군산대학교박물관, 2009, 『김제 반월리·석담리 봉의산·장신리』.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금강(II)지구 김제 1-2공구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 『김제 수록리 유적』.
- 金奎正·梁英珠·安鉉重, 2011, 『金堤 長華洞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김규정·김상규·권정혁·곽스도, 2013, 『전주 원장동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 金奎正·양영주·김대성·안현중·권정혁·진현석, 2013, 『익산 구평리 I·II·IV, 연동리 I, 용기리 I·II 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 金奎正·權正赫·陳眩錫·朴祥善, 2014, 『김제 부거리·하정리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 金鍾文·金奎正·金大聖, 2007, 『完州 孝子4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박영민·고금남·전지호·정인숙, 2009, 『全州 中仁洞 河鳳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박영민·고금남·전지호·정인숙, 2009, 『全州 長洞II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5, 『益山 信洞里 遺蹟-5·6·7地區』.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13, 『益山 五龍里 遺蹟』.
- 유철·방민아·김은희, 2012, 「전주 만성동 초기철기시대 유적」, 『2012년 유적조사 발표회』, pp.104-114.
- 유철·강원중·조자영·신효진·양선미·구명자, 2014, 『익산 송학리유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유철·이은정·김소현·노경진·백옥중·노지현·양선미, 2014, 『전주 정문동·중동·만성동유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유철·이은정·전상학·노경진·백옥중·임인혁·노지현·양선미, 2014, 『전주 안심·암멸유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이은정·노경진·양선미, 2014, 『김제 부거리유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完州 德洞遺蹟』.
- _____, 2013, 『金堤 上東洞 I 遺蹟』.
- _____, 2013, 『전북 혁신도시 중동C·수랑골A·신정유적』.
- _____, 2014, 『金堤 上東洞III·西亭洞II遺蹟』.
- _____, 2015,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1차) 자료」.
- 全榮來, 1987, 「錦江下流 青銅器文化圈 新資料」, 『馬韓·百濟文化』.
- _____, 1990, 『全州 如意洞先史遺蹟發掘調查報告書』. 全州大學校博物館.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2, 『益山 間村里 遺蹟』.
- _____, 2005, 『完州 葛洞遺蹟』.
- _____, 2006, 『群山 屯栗遺蹟』.
- _____, 2008, 『全州 馬田遺蹟(IV)』.
- _____, 2009, 『完州 葛洞遺蹟(II)』.
- _____, 2009, 『金堤 山稚里·兩靑里·羅是里遺蹟』.
- _____, 2012, 『益山 啓文洞遺蹟』.
- _____, 2013, 『益山 西豆里1·栗村里·新龍里·慕縣洞 遺蹟』.
- _____, 2013, 『全州 中洞 遺蹟』.
- _____, 2014, 『完州 葛山里遺蹟 I·II』.
- _____, 2014, 『完州 新豐遺蹟 I·II·III』.